

영웅 아닌 청년 안중근의 고뇌와 열정

하얼빈

김훈 지음



“철도는 눈과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그 먼 끝에서 이토가 오고 있었다. 멀리서 반딧불처럼 깜박이는 작은 빛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빛이라고보다는 기억할 수 없이 강렬한 끌림 같은 것이었다. 두 박자로 쿵쿵거리며 열차의 리듬에 실려서 그것은 다가오고 있었다. 문득 빌렘에게 영세를 받을 때 느꼈던 빛이 생각났다. 두 개의 빛이 동시에 떠올라서 안중근은 이토를 사진을 들여다 보던 눈을 감았다.” (‘하얼빈’ 본문 중에서)

작가 김훈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장’이다. 그의 문장은 하나의 ‘스타일’이 된 지 오래다. ‘우리 시대의 최고 문장가’라는 상찬은 그의 글이 지닌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훈의 첫 장편소설 ‘칼의 노래’를 읽었던 독자라면 기존의 작가들과는 다른 작가의 문장이 주는 신선한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작가는 장수로서의 이순신과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실존의 시각으로 그렸다. 묘사와 진술이 교묘하게 결합된 글은 많은 이들에게 ‘읽는 맛’을 선사했다. 이번에 작가 김훈이 안중근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하얼빈’을 출간했다. 오는 15일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발간된 소설에 대해 작가는 ‘반드시 써야만 했던 일생의 과업’이라고 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나는 밥벌이를 하는 틈틈이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보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생애와 죽



적을 찾아서 일본의 여러 곳을 들여다보았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안중근은 조선의 주권을 침탈한 원흉인 이토를 사살한 독립운동가이자 의병장이다. 그의 애국적이며 드라마틱한 삶은 많은 기록으로, 콘텐츠

로 제작되고, 활용됐다.

그러나 김훈은 독립운동가와 의병장이라는 대의적 이면에 가리워진 안중근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한 인간으로서의 안중근은 어떤 인물인지 그의 고뇌와 실존에 대해 탐색한다. 이 지점에서 작가의 하드보일드 문체는 빛을 발한다.

한마디로 서사는 역동적이다. 이토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일제와 안중근으로 대변되는 청년기의 패기와 열망이 부딪힌다. 살인이라는 죄를 두고 한 인간의 대의와 윤리의 대립은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다. 나아가 천주교도로서의 신앙심과 속세의 인간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나약함은 작가 특유의 문체와 결합해 강렬한 울림을 준다.

안중근이 이토를 쏘기로 결심하는 순간, 온몸을 흐르는 전율이 인다. 그는 일제의 조선 침탈을 넘어선 대륙으로의 진출 야심을 감지한다. 마침내 하얼빈을 향한 장도에 오르고 안중근은 함께 의병활동을 했던 우덕순을 만나 ‘거사’를 도모한다.

신념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험난한 여정과 그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열정과 담대함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의를 위한 희생, 그것은 가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넘어 순수한 빛으로 다가온다.

김훈은 말한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신탄 일곱 발과 여비 백 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 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고.

〈문학동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책

▲워싱턴 블랙=1818년 연극령 바베이도스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어난 노예 꼬마 워싱턴, 농장주의 동생인 과학자 티치와 열기를 타고 농장을 달아난다. 추격자들을 피해 마나먼 북극을 향해 대모험을 떠난다. 저자 앨리스 민로는 캐나다 최고의 문학상인 길러상 수상자이자 이 작품으로 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세련된 문장과 구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분까지 놓치지 않는 걸작. 〈민음사·1만8000원〉

▲징비록=아르테 클라시 아고라 시리즈 첫 도서.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란의 잿더미 속에서 유성룡이 직접 쓴 책이다. 유성룡은 이 책으로 반대편의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이 책은 임진왜란에 관한 대단히 귀중한 사료임은 분명하다. 말 그대로 ‘징비(지난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여 삼감)’를 위해 지나간 전쟁을 뒤돌아보며 쓴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아르테·2만4000원〉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중간국들은 충돌하는 두 세력 사이에 끼인 국가로서 경쟁하는 강대국 내지 두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인 세력 구도 아래서 충돌지대에 위치한 중간국들은 그 생존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전통적인 중간국의 대외 전략인 회피·조율·특화·균형·헤징·편승에 대해 알아



다. 〈사회평론아카데미·2만7000원〉

▲죽음은 최소한으로 생각하라=철학자 스피노자는 흔히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격언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막상 그의 철학에 접근하려면 난해한 용어에 발목이 잡히고 만다. 2004년 플라치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스티븐 내들러가 스피노자가 15년에 걸쳐 집필한 ‘에티카’에서 우리 일상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골라내 친절하게 해설해 준다. 〈민음사·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여름 음식 에세이... 치킨 사랑과 아이스크림의 추억

먹을 줄만 알았는데 시험에 들게 될 줄이야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시시해져도
난 슬플때 타코를 먹어

김미정·하현·이수희 지음



세미콜론이 퍼내는 ‘땡’ 시리즈는 “인생의 모든 땡하는 순간, 식탁 위에서 만나는 너만의 작은 세상”을 주제로 진행된다. 고등어, 라면, 평양냉면, 삼각김밥 등 개별 음식을 다루기도 하고 ‘엄마 박완서의 부엌’ 등 음식과 연계된 잔잔한 이야기가 어우러지기도 한다. 새로 출간되는 음식의 면면을 볼 때 ‘너만의 땡’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언급된 음식에 대한 ‘너만의 추억과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된다.

이번에 한꺼번에 나온 ‘여름 3부작’은 전국민의 간식 치킨, 어릴 적부터 우리의 친구였던 아이스크림, 그리고 멕시코 푸드로 여름과 꽤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다. IT업계 직원인 김미정의 ‘먹을 줄만 알았는데 시험에

들게 될 줄이야’는 ‘치킨’이 주인공이다. 저자는 ‘제1회 배민 치킨리에 자격시험’ 수석합격자다. 멜로디를 듣고 치킨 프랜차이즈 광고음악을 고르고, 치킨 사진을 보고 정확한 이름을 적는 필기영역과 직접 치킨을 먹으며 해당 브랜드와 메뉴 이름을 맞추는 실기영역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그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주 4회 치킨을 먹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유쾌하다. 양념이 좋은지, 후라이드가 좋은 집, 인생 치킨을 찾아가는 여정, 치킨으로 분석하는 인간 관계를 비롯해 치킨이 도착하면 무조건 뚜껑을 열고 아래에 있던 조각을 뒤집어 녹눅함을 방지하라는 알찬 정보까지 수다의 향연은 끝이 없다.

‘달의 조각’ 등을 쓴 하현 작가의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시시해져도’는 ‘아이스크림’을 다룬다. 거창하고 비싼 아이스크림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머니가 가벼울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크게 특별한 것도 없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 저자는 바밤바, 조스바, 메로나, 빠베코, 더위사냥 등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 가도 만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매개 삼아 추억을 소환하고 따뜻함을 전한다.

‘동생이 생기는 기분으로’ 등을 쓴 이수희 작가의 ‘난 슬플때 타코를 먹어’는 ‘멕시코 푸드’를 다루고 있다.

자칭 ‘타코인’이라고 부르는 저자는 매일 먹어도 새롭고, 질리지 않는 음식이 멕시코 푸드라고 자부한다. 멕시코 패스트푸드점과 멕시코 펍에서 다년간 일하고 멕시코로 식도라 여행을 떠나며 내공을 쌓아온 그녀가 들려주는 브리또, 타코 등 멕시코 음식 이야기는 저자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배부러져 흥미롭게 다가온다.

앞으로 ‘직장인의 점심식사’ (서효인), ‘돈가스’ (안서영·이영하), ‘남이 해준 밥’ (김현민), ‘떡볶이’ (김겨울) 등 음식에 대한 ‘네버엔딩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콜론·각 권 1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체할라, 천천히 먹어=조그마한 굴속에 들쥐와 아기 들쥐 일곱 마리가 살고 있다. 아기들은 크느라 그런지 늘 배고프다고 보낸다. 어느 날, 아빠 들쥐는 먹이를 구하려 나갔다가 그만 고양이에게 뒷다리를 물린다.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영남문화상 동화 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선 박상희 작가의 신간으로 아빠 들쥐의 고단함과 자식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생생히 전달된다. 〈기문비어린아·1만3000원〉

▲엄마는 바다가 좋아=‘오늘도 기다립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를 만났어’에서 자전적 경험에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독자들을 매료시킨 정혜경 작가의 새책. 한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엄마의 어린 시절

과 현재를 유려하게 넘나들며 그리운 추억을 소환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필과 투명한 수채 물감으로 담백하고 따스한 그림을 그려 바다를 향한 설렘을 극대화 했다. 〈한울림어린이·1만5000원〉

▲아빠 해마 이야기=‘아주아주 배고픈 에베레스트’를 쓰고 그린 그림책의 거장 에릭 칼이 아빠 물고기의 부성애를 보여 주는 그림책. 배 주머니에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알을 품고 사는 아빠 해마. 직접 지은 머지에서 알을 지키고 아빠 큰가시고기. 머리에 알을 품고 다니는 쿠르투스. 배에 길쭉하게 알을 달고 다니는 아빠 실고기 등 여섯 종류의 아빠 물고기들이 등장한다. 〈시공주니어·1만6000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